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4년 4월 15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농업기계 안전 이용 교육 교육생 120명 선착순 모집-2면	동부농업기술센터	제주일보
○	[기고] 기후 위기에 직면한 농업의 미래를 위해-14면(양성년)	농산물원종장	제주일보

(제주일보: 2024년 4월 15일)

○ 농업기계 안전 이용 교육 교육생 120명 선착순 모집-2면

농업기계 안전 이용 교육

교육생 120명 선착순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 농업기술센터는 16일부터 ‘농업기계 안전 이용 교육’과 ‘여성 농업인 농업기계 교육’ 등 2개 과정에 참여할 교육생 1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용 굴착기와 트랙터 등 농업기계 현장 이용 기술 향상을 통한 농작업 효율성 증대와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교육 기간과 선착순 모집 인원은 농업기계 안전 이용 교육은 오는 5

월 9일부터 28일까지 100명, 여성 농업인 농업기계 교육은 5월 27일과 28일 20명이다.

동부농업기술센터는 16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접수를 진행한다. 동부농업기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760-7671~2)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업용 굴착기와 트랙터를 임대할 자격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 오승진 농업기계화팀장은 “최근 농업기계 사고가 빈번한데 무엇보다 안전 재해 예방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농업기계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일보 2**

(제주일보: 2024년 4월 15일)

○ [기고] 기후 위기에 직면한 농업의 미래를 위해-14면

기후 위기에 직면한 농업의 미래를 위해



나의 의견

양 성 년

제주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전국의 농민들이 폭우, 가뭄 등과 같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이상 기온으로 인해 과일이 익기도 전에 잎이 모두 떨어져 제대로 수확할 수 없었던 포도나 여름철 폭염으로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다 썩어 폐기해야만 했던 육지부의 복숭아·자두와 같은 사례들은 농업현장에서 온몸으로 겪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고온과 집중호우로 두류 작물의 작황 부진 및 병해충 발생 피해를 입었고, 캄보디아에서는 농산물 생산량이 30%가량 감소했다. 이렇듯 농업은 기후에 아주 민감한 산업이

므로, 기후위기는 농업의 위기이며, 식량의 위기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 우선, 단일 품종을 대량 생산하는 구조는 병해충 발생의 위험이 높으므로 기후 위기 대응에 취약하다. 따라서 변화된 기후 생태에 적응이 가능한 다양한 품종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파종 및 이식시기를 조절하고 생산성이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재배 기술을 도입해야 하며, 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토양수분 보존 기술이나 침수, 침식 및 양분 용탈 방지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GMO(유전자 변형 개체) 규제 완화로 종자 기업에 의해 씨앗 독점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응해 식량 주권 및 농민의 종자권, 생물 다양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4.15.** 함께 나아가야 할 때이다.

제주일보 14